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03
2013. 04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3.1 ~ 3.31)

건축문화 부문

- 임동근로자복지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물 선정
- 서울시, 도보관광 24개 코스를 한눈에
-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 선정
-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 4대강 생태정보, 수생태 지도로 한눈에 보세요
- 서울시, 에너지 전환문제 관련 생태도시포럼 개최
- 전통건축에서 찾는 지난 시대의 이야기
- 인천도시인문학센터, 도시경관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세미나
-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기념 여성정책포럼 개최

녹색 건축 · 도시 부문

- 서울시, 성수IT지구 육성, 첨단 전통산업 상생 모델로 개발
- 생태휴식 및 자연환경 체험 공간 늘어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 노후 공공건축물의 변신! 그린리모델링으로 재탄생!
-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될 듯
- 공간 융합정보 생성 기술, 업무모델 특허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높인다
- 광주시, 도시녹화사업 10대 시책 발표
- '똑똑한 녹색성장' 경기도가 앞장섭니다
- 국토교통부, 2014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도시만들기)'의 새주인공을 찾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서울시, 시민생활 불편해소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
- 제물포길, 놀라운 공간변화의 상상력 아이디어 공모
- 제5회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실시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확정 (3.13.~4.3.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일반인 공람 실시)
- 땅 속, 손쉽게 들여다 보세요! 시추정보 민간까지 공개
- 부산시, 2013년도 도시브랜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주민참여 마을길, 어떻게 가을까?'
- 세상을 바꾸는 착한 디자인 찾는다



Contents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4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5
	건축문화 부문	7
	전통건축에서 찾는 지난 시대의 이야기	7
	서울시, 도보관광 24개 코스를 한눈에	7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 선정	8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9
	임동근로자복지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물 선정	9
	4대강 생태정보, 수생태 지도로 한눈에 보세요	10
	광주시, 공간정보제공서비스 6종으로 대폭 확대	11
	녹색건축도시 부문	12
	서울시, 성수T지구 육성, 첨단·전통산업 상생 모델로 개발	12
	대전시, 녹색성장 선도도시 건설 ‘총력’	13
	생태휴식 및 자연환경 체험 공간 늘어났다	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14
	노후 공공건축물의 변신! 그린리모델링으로 재탄생!	15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될 듯	16
	공간 융합정보 생성 기술·업무모델 특허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높인다!	16
	광주시, 도시녹화사업 10대 시책 발표	17
	‘똑똑한 녹색성장’ 경기도가 앞장섭니다	17
	생태 자원의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18
	국토교통부, 2014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도시 만들기)’ 의 새 주인공을 찾다	18
	대구시, 복지기관 등 8개소에 「녹색복지숲」 조성	18
	혁신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	19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20
	땅 속, 손쉽게 들여다보세요! 시추정보 민간까지 공개	20

조달청,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	20
주민참여 마을길, 어떻게 가꿀까?	21
서울시, 시민생활 불편해소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21
한 뼨 늘어난 우리 동네 공원으로 놀러오세요	22
부산시, 2013년도 도시브랜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22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확정	23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23
대전시, 동구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건립 ‘본격화’	24
제5회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실시	24
경기도, “하자는 안돼” 건축인 한자리에	25
세상을 바꾸는 착한 디자인 찾는다	25
제1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26
충북 도내 공공디자인, 스토리텔링으로 꾸며진다	26
2013년 충청북도 건축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	26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건축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 선정, 도보관광 코스 지도발간 등 생태환경과 문화체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발표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고유의 역사 유산 및 전통 문화 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행된 ‘문화도시 사업’의 사업성과와 향후 과제들이 발표되었다.

이밖에, 3월에 열린 행사 및 전시로 도시와 도시경관이미지를 주제로 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비롯하여 전통건축 사진을 통해 전통건축에서 찾는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회가 3월6일부터 4월1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개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 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주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대전시가 ‘녹색성장 도시’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법·제도 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도 도시녹화사업 10대 시책을 발표하고, 경상북도는 자연생태공원 15개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24개소의 소규모 생태공원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연환경 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더불어 미래를 생각하는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건축문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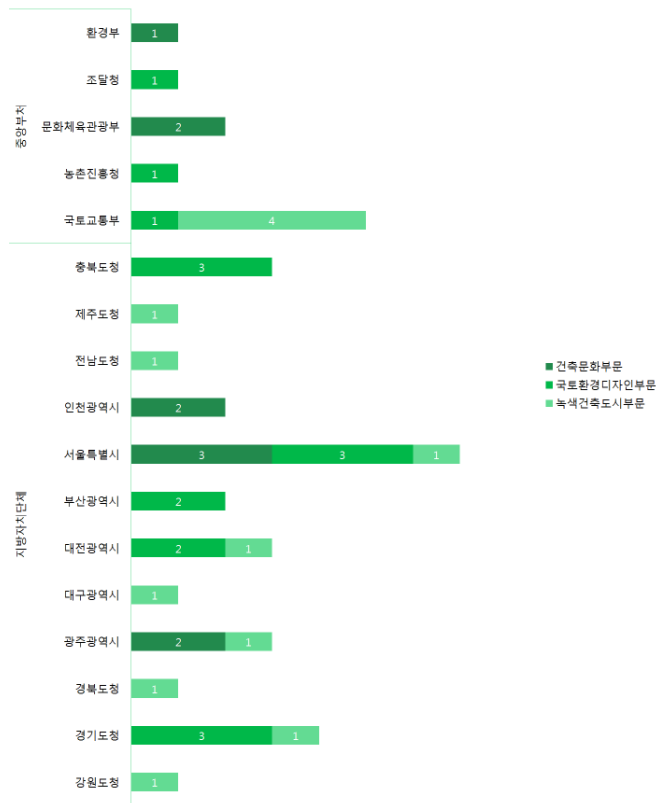
3월, 국토부에서는 2000년부터 개별적으로 생산된 시추정보를 DB화하는 ‘건설시추정보 전산화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시추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지하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청,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서 각각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경기도청에서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공공디자인에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홍보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시켜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3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9건 중 중앙부처는 10건 (25.6%), 지방자치단체는 29(74.4%)건으로 정리된다.



■ 각 부문별 관련기관

중앙부처는 총 29건의 정책보도 중에서 「녹색건축도시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 4건(10.3%)으로 중점 보도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이 보도된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로 '맞춤형 도시재생(도시만들기)사업' 추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등 5건이 보도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29건의 정책 보도 중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 13(33.3%)건이 보도되었으며, 서울시는 '에너지 전환문제 관련 생태도시 포럼' 개최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등 7 (17.9%)건으로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을 보도하였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교통부	—	1(2.6%)	4(10.3%)	5(12.8%)
농촌진흥청	—	1(2.6%)	—	1(2.6%)
문화체육관광부	2(5.1%)	—	—	2(5.1%)
조달청	—	1(2.6%)	—	1(2.6%)
환경부	1(2.6%)	—	—	1(2.6%)
합계 (중앙부처)	3(7.7%)	3(7.7%)	4(10.3%)	10(25.6%)
강원도청	—	—	1(2.6%)	1(2.6%)
경기도청	—	3(7.7%)	1(2.6%)	4(10.3%)
경북도청	—	—	1(2.6%)	1(2.6%)
광주광역시	2(5.1%)	—	1(2.6%)	3(7.7%)
대구광역시	—	—	1(2.6%)	1(2.6%)
대전광역시	—	2(5.1%)	1(2.6%)	3(7.7%)
부산광역시	—	2(5.1%)	—	2(5.1%)
서울특별시	3(7.7%)	3(7.7%)	1(2.6%)	7(17.9%)
인천광역시	2(5.1%)	—	—	2(5.1%)
전남도청	—	—	1(2.6%)	1(2.6%)
제주도청	—	—	1(2.6%)	1(2.6%)
충북도청	—	3(7.7%)	—	3(7.7%)
합계 (지방자치단체)	7(17.9%)	13(33.3%)	9(23.1%)	29(74.4%)
총 계	10(25.6%)	16(41%)	13(33.3%)	3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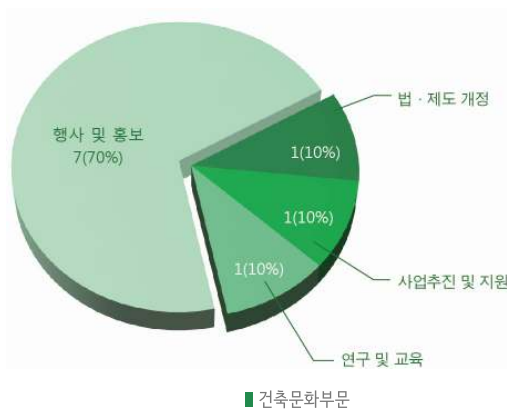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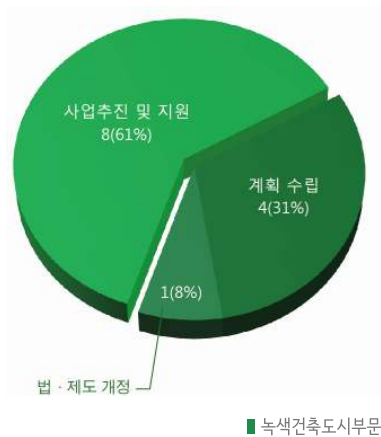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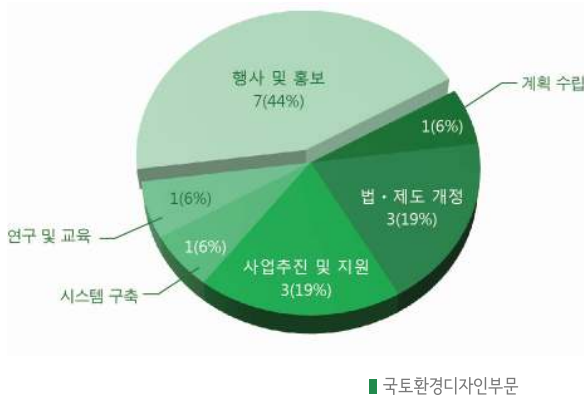
■ 각 부문별 관련기관

5개 중앙부처와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된 정책사업 전체 39(100%)건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16(41%)건이 보도되었으며,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공모전 및 워크숍 개최 등 공공건축과 관련한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고,

「녹색건축부문」은 전체 39(100%)건 중 13(33.3%)건으로 노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및 '혁신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조성',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등의 정책사업이 보도되었다.

「건축문화부문」은 39(100%)건 중 10(25.6%)건으로 '광주시 공간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서울시, 도보관광 24개 코스 안

내지도 발간' 등 공간정보와 문화탐방, 생태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가 보도되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1(2.6%)	4(10.3%)	5(12.8%)
법·제도 개선	1(2.6%)	3(7.7%)	1(2.6%)	5(12.8%)
사업추진 및 지원	1(2.6%)	3(7.7%)	8(20.5%)	12(30.8%)
시스템 구축	—	1(2.6%)	—	1(2.6%)
연구 및 교육	1(2.6%)	1(2.6%)	—	2(5.1%)
행사 및 홍보	7(17.9%)	7(17.9%)	—	14(35.9%)
총 합계	10(25.6%)	16(41%)	13(33.3%)	39(100%)

■ 부문별 관련 세부분야

3월 보도된 정책과제를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39건 중 '행사 및 홍보' 관련 분야의 정책과제가 14(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2 (30.8%)건, '계획수립' 및 '법·제도 개선' 분야가 각각 5(12.8%)건, '연구 및 교육' 분야 2(5.1%)건, '시스템 구축' 분야가 1(2.6%)건으로 보도되었다.

각 부문에 대한 세부분야로는 「녹색건축도시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가 8(20.5%)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과제를 보도 하여, '경기도-2013년도 녹색성장 4대 전략 및 9대 정책방향 112개 사업 확정', '대구시-북지기관 등 8개소에 <녹지 복지숲> 조성'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문화 부문

전통건축에서 찾는 지난 시대의 이야기

3.6(수)~4.1(월)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 '전통건축 사진전'

한국의 문화유적 특히 고건축을 테마로 20여년 꾸준히 사진작업을 하는 사진가 박재영의 전통건축 사진전이 3월 6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개최된다.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진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재영씨는 현재 경복궁 소주방 복원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어 문화재 이론 및 실무에도 밝은 건축가이다. 그의 사진은 건축전 공자답게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간 분석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남다른 전통건축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은 시대를 담은 그릇'이란 말도 있듯이 전통건축에서 지난 시대 역사의 흔적과 사회적 흐름을 찾아내어 사진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사진작업 중 큰 맥락이라고 한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도심 속에 어우러져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가옥과 함께 여러 세대를 거슬러 함께 살아온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3.03.06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시, 도보관광 24개 코스를 한눈에

서울시, 24개 도보관광코스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지도 발간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시 24개 도보관광 코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주)은 총 24개의 서울시 도보관광코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펼침형 도보코스 안내지도 '서울을 걷고, 서울을

품다'를 발간하고 서울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통해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보코스 안내지도에는 총 24개 코스가 수록되어 있다. 고대문화 중심지역(1), 몽촌토성 코스, 전통문화 중심지역(6), 경복궁·효자동, 창경궁, 창덕궁, 북촌한옥마을, 서촌한옥마을, 선릉·봉은사 코스, 근대문화 중심지역(3), 덕수궁·정동, 성북동, 경희궁·서대문 코스, 생태 복원지역(5), 청계천(2코스), 남산성곽, 낙산성곽, 한강·절두산 성지 코스 및 전통마켓 지역(2), 인사동·운현궁, 동대문 전통마켓 코스가 소개되어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도 해설을 들으며 관람이 가능한 해설사 상주코스(4), 남산골한옥마을, 청와대사랑채, 전쟁기념관, 서울시 신청사 통통 투어와 지난 2월부터 신설된 주말 특별코스(3), 창경궁 생태코스, 창덕궁 생태코스, 성균관 코스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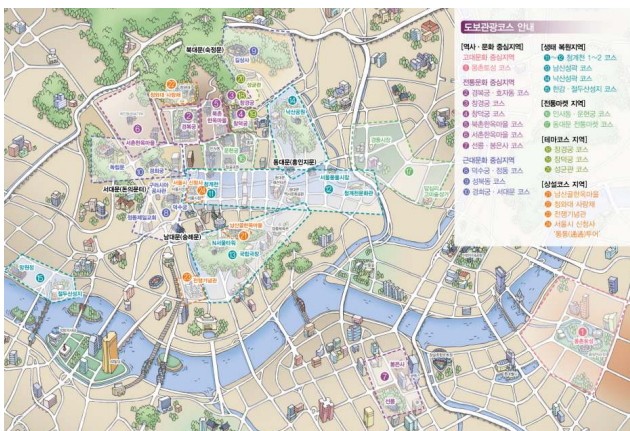
서울시는 국내 관광객 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 도보관광 코스를 홍보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문 및 영문 지도를 동시에 발간하였으며, 중문과 일문 지도 발간도 4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 보도코스를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총 80,744명으로, 전년도 이용객(64,697명)대비 약 24.8%가 증가하였다. 이는 단체관광보다 개별관광을 선호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춘 테마여행 및 스토리가 담긴 명소 탐방을 원하는 관광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두 다리로 서울 구석구석의 숨은 이야기를 알아가는 도보관광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한 결과이다.

국내·외 관광객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서울시는 최근 '궁궐 속 생태 이야기', 창경궁, 창덕궁 코스 및 '성균관 유생들의 삶'을 만나보는 성균관 코스를 주말코스로 신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궁궐 속 생태 이야기-창경궁, 창덕궁 코스'는 영조 38년(1762) 사도세자가 창경궁 문정전 앞뜰에서 뒤주에 갇혀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보았던 당시의 나무 중 살아남은 선인문 앞 '회화나무의 이야기' 등 궁궐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꾸며주는 궁궐 속 풀·나무들이 전하는 역사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코스이다. 성균관 코스는 시중에서 보기 힘들었던 성균관의 도서를 보관하던 '존경각'과 여름이면 성균관 유생들이 수영을 즐겼던 성균관의 하천인 '반수' 등 성균관 곳곳의 다양한 옛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코스이다.

서울시 도보관광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며, 도보관광을 원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서울시 도보관광 홈페이지(dobo.visitseoul.net)를 통해 사전예약 하고 이용하면 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보 코스 및 한류 문화 체험코스, 근현대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코스 등 관광객의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별 신규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스토리텔링 사업과 연계하여 '주제와 스토리가 있는 서울만의 도보관광'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24개 도보코스 안내지도

2013.03.14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 선정

역사문화길(성주 가야길, 진주 비단길, 진도 아리랑길),

종교문화길(아름다운 순례길 6~7코스), 테마여행길(마포 난지생명길, 백령 구경길, 포천 한탄강 어울길, 가거도 셋개제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우수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하였다.

역사문화길(3) : 성주 가야길, 진주 비단길, 진도 아리랑길

종교문화길(1) : 아름다운 순례길 6~7코스

테마여행길(4) : 마포 난지생명길, 백령 구경길, 포천 한탄강 어울길, 가거도 셋개제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9년부터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길 중, 특히 도보 여행객들이 가볼 만한 곳을 지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한양도성, 해남 땅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안동 유교문화길, 해파랑길 등 전국에 39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탐방로별 상세 노선은 녹색관광홈페이지(www.녹색관광.kr)나 '두발로' 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생태탐방로 선정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걷기여행 작가, 생태전문가, 탐방로 및 관광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였다. 올해도 서면심사와 현지답사를 거쳐 탐방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의 우수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후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생태탐방로를 선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문화생태탐방로에 대하여 탐방로 조성 및 안내 체계 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되, 시설물 설치 등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탐방로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 제공하도록 해 문화적·친환경적인 탐방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로 관계 전문가로 '탐방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탐방로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탐방로 별로 특화된 주제들을 발굴,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여 해당 탐방로가 명품 도보 탐방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미 지정된 탐방로에 대해서도 전문가 평가

및 자문 등을 실시하여 우수 탐방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도보여행자들의 이용이 많지 않고 관리도 소홀한 탐방로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무분별한 탐방로 조성을 지양해 나갈 계획이다.

2013.03.18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경주)교촌한옥마을 (전주)한국전통문화의 전당 등 1단계 핵심사업 모습 드러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전주시, 경주시, 공주시·부여군이 공동으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추진 중인 3개 지역 역사·전통문화도시 사업이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경주 등 3개 문화도시사업은 지역 고유의 역사 유산 및 전통문화 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6년부터 '12년까지 3개 지역 문화도시 사업에 76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13년에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사업 등 3개 지역 총 14개 사업에 1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은 '교촌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교촌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월정교 복원'이 완료되는 등 1단계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경주의 역사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 지속적인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결과로 2010년부터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경주시는 '3년에는' 한옥보존지구 조성 '등 경주의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은 1단계 핵심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입된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건립, '전주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문화도시 사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문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전통문화의 일상적인 유통·향유·소비의 중추적인 문화 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전당 완공을 계기로 '13년 사업부터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는 다른 문화도시 사업보다 뒤늦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대표적인 원료 사업은 없지만, 도시를 점진적으로 옛 도읍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시 이미지 회복과 핵심 유적들의 복원과 활용 강화 부분의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제시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근거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문화도시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회계 제도를 개편하며,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문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담당 행정가들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포럼을 구성하여 '13.4월부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3.03.2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임동근로자복지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물 선정

국토해양부서 설계비 지원·건축비 국비 지원 가능성도 열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 국토해양부의 '201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건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노후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주지역에서는 임동근

로자복지관이 선정돼 약 1억 원내의 설계 지원을 받게 된다.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북구 임동에 교육센터, 어린이집, 복지매장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1990년 3월 준공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있고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커 시설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설계비 1억 원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앞으로도 공사비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리시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모델로 구축함으로써 주변 환경 정비 및 구도심 재생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및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로자 복지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3.03.18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4대강 생태정보, 수생태 지도로 한눈에 보세요

환경과학원,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로 '수생태 지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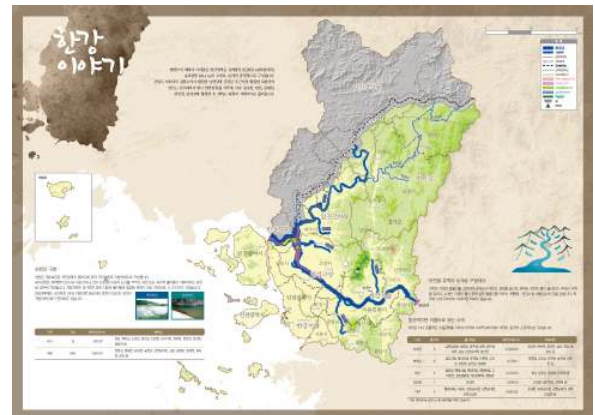
4대강 수생태계의 정보를 총망라한 수생태 지도가 발간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 이하 '과학원')과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수생태 지도'를 완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는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수질뿐만 아니라 생태분야를 접목해 온전성을 평가함으로써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지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 3년간 매년 발간돼 4대 권역별로 각각 3권씩 총 12권이며, 총 2,000여장의 사진 및 삽화와 500여개의 수생태계 건강성 정보를 담아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쉽게 하천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도에 수록된 사진과 그림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직접 실시한 연구자들과 각 지역 전문가들의 기증과 협조로 수집됐다.

세부내용으로는 4대강 수계 총 110개 중권역의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서식수변환경 등 5개 분야를 분류군별 아이콘, 도표 등으로 시각화했다. 이와 함께 해당 중권역에서 주로 출현하는 동식물들의 특징과 하천 생태계의 정보를 이야기 형태로 수록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생태 지도를 올해 6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나아가 4대강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보전 및 복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도를 제작해 우리나라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수생태 지도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대강 수생태지도 일부(한강)

2013.03.1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공간정보제공서비스 6종으로 대폭 확대

관련 조례 개정, 4월부터 서비스 확대·수수료 인하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정보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하한다. 시는 오는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1종만 제공해온 공간정보 제공서비스 6종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방식을 원가산정 방식에서 실비로 산정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정보 자료 종류는 수치지도 1종에서 수치지도,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 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 6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치지도(A1기준)는 10만1,300원에서 12,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3.03.11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녹색건축·도시 부문

서울시, 성수IT지구 육성... 첨단·전통산업 상생 모델로 개발

중소제조업 기반 견고화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마련위해 '12년 선정 서울의 첫 번째 서울형 특화산업지구인 '성수 IT 산업개발 진흥지구'가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의 중소기업 기반 견고화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 출판지구'의 3개 특화산업지구 진흥계획 고시를 계기로, 금년부터 성수 IT 산업개발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성수 IT 지구>를 수제화, 인쇄, 자동차정비업 등 기존 전통산업과 첨단 IT기술 융합모델로 발전시키고, 유기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성동구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부(539,406㎡)에 지정된 성수IT지구에는 '11년 9월 기준, 총 271개의 IT/BT/R&D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이는 지구내 전체 기업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성수지구 활성화를 위해 성수IT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성장기업 육성, 경영컨설팅·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자금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성장기업육성 사업'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연간 1,400만원을 지원한다. 성수동내 IT/BT/R&D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도 지원한다.

이 지역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조달과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수 IT CEO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우수 기업과 인력의 취업미스매치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미래성장기업 육성	관내 대표기업 선정 육성, 해외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출원 및 인증 확보, 기업 및 제품 홍보	5개사, 전체사업비의 70%이하 지원(기업당 1,400만원 한도), 기업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30%이상(현금)
IT기술융합 지원	산업분야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융합과제 지원	2개 과제, 과제별 소요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IT·SW+전통산업, IT·SW+서비스업, IT·SW+IT·SW 등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력채용 지원 및 공동연수, CEO 아카데미,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수시채용 지원 및 신입직원 공동연수 CEO 아카데미 개최,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투자유치 지원	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프로그램 활성화	8개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자료제작 지원,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술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품질/시스템 인증 지원, 특허취득 지원	소요비용의 80%이내, 최대 1,000만원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회사 및 제품홍보, 매체광고 및 기사 지원,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언론매체·온라인홍보·홍보물 제작, 소요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소요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 지원
경영 지원	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 애로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지원
수제화산업 마케팅 지원	성수 수제화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 플랫폼 구축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SNS 마케팅 지원
	성수수제화타운 진품확인 앱 개발지원	진품확인 태그제작 지원, 앱개발 지원

또한, 서울시는 성수동지역에 집적된 수제화, 인쇄출판, 자동차 정비등과 같은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구 내 IT기업과 전통산업기업의 협업도 실시한다. 올해는 IT기술을 활용한 수제화 산업의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값싼 중국산 수제화의 대거유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성수동 영세 수제화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태그를 활용하는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수제화에 칩을 내장하여 수제화의 원산지, 소재, 구매자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수 수제화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국산제품과 차별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수제화 산업 기술개발에 1억원을 투입하여 풋 스캔 (Foot Scan)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상품 화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제화를 구매할 경우 발을 기계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발의 길이, 넓이, 발 형태 등이 측정되어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의 발에 맞는 수제화 제작구매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성수IT산업개발진흥 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수동에 집적한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성수IT지구를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수IT지구 육성을 통해 성수동에 집적한 IT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쇠퇴하는 중소제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성수IT산업개발지구내 강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2013.03.03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대전시, 녹색성장 선도도시 건설'총력'

4일, 녹색성장위원회 개최...119개 단위사업 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대전시가 녹색성장 5개년 중기계획에 따라 녹색성장 선도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5326억 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4일 오후 2시 중구청회의실에서 노병찬 행정부시장, 양지원 KAIST교수, 녹색성장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계획 실행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올해 추진할 119개 단위사업 심의, 녹색성장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순으로 진행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

요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기구인 만큼 격의 없는 토론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시와 자치구의 실무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계획을 수정·보완, 올해 실행할 대전시 녹색성장 계획을 최종확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전시 녹색성장 1단계 추진계획(2009년~2013년)은 '녹색성장 탄소저감 선도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4대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시는 지난해 133개 단위사업 중 20개 사업은 완료, 1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건변화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3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녹색성장 주요 추진 성과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운영, 차량 배출가스 감소, 생태하천 조성, 생활권 도시 숲 확대사업 등을 추진해 조선훈보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또 자원사랑 나눔 실천 문화 및 녹색생활실천 운동 확산 사업 등의 자원재활용 부문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평가 최우수, 녹색제품 활성화 우수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예타통과, 충청권철도망 예타 대상 신청, 유성~세종BRT(일부개통, 잔여구간 예타신청), 대전~세종 BRT(실시설계완료 및 1공구 공사착공), 행복청을 연결하는 광역자전거 교통망 조성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녹색교통 투자 사업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도 '탄소저감 도시, 녹색산업 도시, 녹색시민 도시' 건설을 목표로 녹색성장 119개 단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추진할 4대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녹색 신성장산업 육성, 탄소 저감형 도시교통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녹색 혁명 등이다.

10대 정책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14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11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24건), 녹색기술의 개발(5건),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8건), 산업구조의 혁신(10건), 녹색경제 기반 조성(5건), 녹색도시 조성(20건), 녹색교통체계 구축(9건), 녹색혁명 시민네트워크 구축(13건) 등이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관련분야 전문가,

의회의원, 언론계, 시민단체, 간부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돼 녹색산업 육성 등 지역녹색성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03.05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생태휴식 및 자연환경 체험 공간 늘어난다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경상북도는 도내 각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우수 자연경관과 생태계(비오톱)를 보전하고 이들 자연환경 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생태연못·습지, 탐방데크, 생태학습원, 자연교육장, 관찰센터 등 소규모 생태공원(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포항시의 증명자연생태공원을 비롯한 15개소에 대해 106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총 1천200억원을 투자해 24개소의 소규모 생태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생태공원 확충 계획은 지난달 출범한 새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과 그 성격을 같이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도내 4개 도립공원에 대해 매년 20여억 원을 투자해 탐방로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 공원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 공원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규모 생태공원과 함께 생태휴식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생태휴식과 생태체험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자연환경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보다 건전하게 이용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경북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지역 문화유적과 함께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도민들이 한층 질 높은 문화생활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3.03.08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고,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85mm 이상)에서 창호(복층유리 수준) 외벽 단열재 두께(120mm 이상)로 개정, 창호(로이복층유리 수준)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을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현행 1만㎡ 이상 업무시설을 3천㎡이상 업무시설로 개정하고 향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 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 외벽 평균열관류율(27→34점), LED 조명비율(3→4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4점) /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 ℓ/㎡)의 1/10인 약 1.5 ℓ/㎡ 수준

2013.03.12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변신! 그린리모델링으로 재탄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10곳에 20억 원 지원
청주 시립미술관, 광주 주월초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사 등 지은지 15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 10곳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어려웠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분야에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청주 시립미술관 등 총 10개 건축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 건축물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26.9%)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청주 시립미술관(舊 방송국→미술관) 등 4개소와 설계지원사업 부문에 광주 주월초교(초교→'15 유니버시아드대회 본부) 등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공사비를 지원하는 시공지원사업은 창호, 단열재, 조명, 냉난방 설비 등을 개선하여 요소별로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은 건축물 용도별·형태별·규모별 그린리모델링 요소를 발굴하여 최소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수준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시공지원사업 (4개, 총 15억원)	청주 시립미술관, 전북고창 동리국악당, 충북대학교 생활관,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
설계지원사 (6개, 총 5억원)	광주 주월초교, 부천원미시립도서관, 광주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문경시청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울세관 별관

향후 시범사업 위탁사업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에너지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07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었다.

앞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탈바꿈시키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2013.03.15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될 듯...

이달 중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부족한 공장입지를 제공하고, 수출1조원 시대를 견인해 나갈 핵심 인프라로 조성중인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 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12년부터 '17년까지 1,627억원(국비 490억원, 도비 237억원, 한국농어촌공사 9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조천읍 와흘리 일대에 80만㎡ 규모의 친환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된다.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31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31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가 완료되면 6,300여명의 상근상주이용인구가 발생하는 등 도내 제조업 발전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03.11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공간 융합정보 생성 기술·업무모델 특허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높인다!

단절된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연계 기술을 접목한 행정개선

일사편리 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처리 및 행정절차에 혁신을 몰고 왔던 공간정보 행정이 지속적인 융합과 정보공개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에 관한 BM특허를 등록하여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BM(Business

Model)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이번 BM특허 등록은 국토해양부 최초 사례로, 그동안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 “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한 특허로써, 단절된 업무절차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 상의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하여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로 취득된 기술이 최신의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담고 있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는, 민원서류 발급 중 50%이상이 부동산 정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 부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종합정보까지 하나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되며,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통합정보와 정보구축 기술을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과학적 상권 분석, 고도화 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동, 동구권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 진출시 제도적, 기술적 검증이 된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적용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이번 BM특허로 연결되는 부동산 통합정보가 공간정보와 인문사회 정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BM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개발에 힘쓸 것이며, 향후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하여 산업부분과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및 공유를 통한 정보공개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 했다.

2013.03.19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광주시, 도시녹화사업 10대 시책 발표

2015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추진...25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광주광역시시는 숲과 물이 어우러져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청정 도시조성과 2015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녹화사업의 10대 시책을 발표했다. 10대 시책의 주요내용은 2015만 그루 나무심기 지속 전개, 국제행사대비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 1가정 2그루 과일나무심기 운동전개, 영산강변 100만㎡ ‘광주 시민의 숲’ 조성, 무등산 ‘건강과 치유의 숲’ 조성, 광주 동네한바퀴 ‘빛고을 산들길’ 조성, 거점 공간별 열린녹지 확대, 생활 속에서 만나는 파스한 숲 조성, 맑고 깨끗한 호수 공원 조성, CO² 저감 기후조절숲 만들기 등이다.

시는 2002년부터 지속적인 나무심기를 전개해 2015년까지 2015만 그루 나무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500여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73%의 식재율을 보이고 있다. 또 매년 150만 그루 식수를 목표로 2013년에는 숲과 물을 테마로 10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공기 질이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봄철 식수시기를 맞아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시민동참을 위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오는 25일 오전 11시 시청광장에서 선착순 500명의 시민들에게 감나무, 자두나무 등 3000여 주를 공급하여 1가정 2그루 유실수 식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3.03.22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똑똑한 녹색성장’ 경기도가 앞장섭니다

2013년도 녹색성장 4대 전략 및 9대 정책방향 112개 사업 확정

경기도는 21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도의 녹색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2013년도 녹색성장 4대 전략 및 9대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한 짜임새 있는 112개 사업을 확정하여 1조 4천 10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09년에 수립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에서 4대 전략(대한민국 녹색 신산업 중심지 경기도, 녹색도시·교통의 글로벌 선도지역 육성,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 변화 적응체계 확립, 도민 참여형의 녹색생활 혁명 추진)과 전략별 9대 정책 방향 과제를 통해 도의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1차 5개년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2014년부터 시작하는 2차 계획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2013년 녹색성장 과제 달성에 도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정책에 9개 과제,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19개 과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9개 과제, 녹색 경제 기반 조성에 3개 과제, 녹색도시 교통의 조성 25개 과제,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17개 과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0개 과제, 에너지 절약 및 자립 강화 9개 과제, 생활 속의 녹색 실천 13개 과제 등 총 1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녹색 성장 사업의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Smart Green 경기’ 녹색 성장 BI 및 상징 로고를 제작했다. 이 BI는 좀 더 똑똑하게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꿈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2013년은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해이자 2014년부터 시행되는 2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해이며, 2013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다.

2013.03.24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생태 자원의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강원도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2억원을 들여 5개 시·군 관할 민북지역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 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수는 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반도에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설치된 지 60년을 맞아,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의 일선 보루 역할을 하며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온 민북지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로 올해 민북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민북지역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3.18
강원도청 산림자원과

국토교통부, 2014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도시 만들기)'의 새 주인공을 찾다

'14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별 맞춤형 '도시 만들기'를 위해 3월 27일 전국 9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 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 선정(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 선정절차 : 사업제안 및 예산신청(지자체) → 사업검토·선정안 마련(국토교통부) → 최종 선정(기획재정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13년 신규 사업 선정 시에도 93개 사업('13년 국비신청규모 : 945억원)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맞춤형 도시재생과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에도 이미 선정한 57개 지자체, 총 120개 사업에 1,086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경기 수원(거북시장 조성 활성화사업), 전북 전주(중앙시장개소물골목길 정비), 대구 남구(앞산웰빙먹거리타운조성), 울산 남구(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등

2013.03.2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대구시, 복지기관 등 8개소에「녹색 복지숲」조성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복권기금 10억 원 지원받아

대구시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드림텍 등 복지기관 8개소에

녹색복지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에서 배분받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며,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에 ‘녹색복지숲’을 조성해 환경, 문화적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도심권 내 ‘숲조성’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과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해 7개소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며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시행하는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개념이 적용된 설계로 조기 발주해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복지숲’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3.03.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해 총 44만 1천200톤의 빗물을 재활용한다. 모아진 빗물은 조경, 청소용수로 활용되고 도시 홍수조절, 재해방지, 도시 습도조절 등의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반영,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건축된다. 이를 통해 신청사 소비 전력의 16%를 대체할 계획이다. 난방도 자원순환형 에너지를 활용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해 일반 생활폐기물, 폐목재를 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한다. 기존 개별난방 방식보다 226억 원의 원유 수입 대체효과와 15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전기, 통신시설을 지중화하고 미래 최첨단 정보통신인 유비쿼터스 제공으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혁신도시를 쾌적한 주변 환경과 최첨단 기술이 융합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3.03.31
전남도청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혁신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

전남도,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전기 통신시설 지중화·빗물 재활용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 빗물 재활용시설 설치, 전기·통신 지중화, 신재생에너지 반영 등을 통해 물과 빛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로 단장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조성 면적의 35%가 공원, 화단 등 녹지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특히 녹지공간은 사계절 푸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상록수 비율을 52%로 높였다. 그동안 버려지던 빗물도 재활용 시설을 갖춰 활용한다. 16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호수공원, 저류지 등에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땅 속, 손쉽게 들여다보세요! 시추정보 민간까지 공개

15만개 시추공 정보 활용체계, 올해부터 전면 개선

국토해양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공간정보 관리를 위하여 핵심이 되는 시추정보(건설현장에서 지반 시험추출(시추)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인 지층·지하수·위공학정보 등 지질 및 지하의 특성정보)활용을 확대하고자 '13년 건설시추정보전산화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설시추정보 전산화사업’은 '00년부터 68억 원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된 약 15만 4천공의 시추정보를 DB화했으며, '07년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약 69만 5천공을 제공하여 세종시 입지선정('03.12), 여수세계박람회 지반조사('11.5)에 활용하는 등 중복시추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추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http://www.vworld.kr>)과 연계하여 땅속 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IT기기 등을 통해 땅속 정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시추정보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구축된 시추정보 DB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 탄광, 지하수 등 타 지하정보와의 연계활용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시추정보를 본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사업의 전면 개편을 위한 추진전략(ISP)을 수립하고 시추정보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변동감지 기능을 탑재한 표준시추공 등에 관한 기술연구도 병행하며, 올해 1만 5천공 이상의 시추정보를 구축한 뒤, 향후 공공 및 민간기관 시추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시추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지질구조지

하수 분포 등 지하공간정보와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상과 지하공간 이용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3.03.20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조달청,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

건설현장 시공사·감리단 등 참석 ... 품질관리·하자방지 의견 수렴

조달청은 3월 8일(금) 오전 대전 유성에서 자체 시공관리중인 37개 공사현장의 시공사·감리단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참석자(106명) : (조달청) 30명, (감리단)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등 33명, (시공사) 계룡건설(주) 등 43명)한 가운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공사관리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공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품질관리와 하자방지책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 직접 지급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공사현장 참여자들 간 상호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건설현장 종사자가 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013.03.08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팀

주민참여 마을길, 어떻게 가꿀까?

농촌진흥청, 전국 30개 마을길과 함께 가꾸는 비법 소개

농촌진흥청은 농촌 주민들이 마을길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스한 인심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마을길 ‘그린로드’ 30곳을 소개하고, 이 길을 농촌주민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제1장 마을길 그린로드 즐기기, 제2장 마을길 그린로드 걷기, 제3장 마을길 그린로드 와글와글, 제4장 마을길 그린로드 가꾸기로 엮었다. 1장에는 자전거, 자동차, 기차 등을 이용해 그린로드 마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2장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발굴한 그린로드 지역 농촌마을 30곳을 제시했다. 3장에는 그린로드 발굴지역 마을 리더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으며, 4장에는 그린로드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내용과 앞으로 관리, 운영 방안을 정리해 놓았다.

2013.03.29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지원과

서울시, 시민생활 불편해소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서울시는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이며,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2,223㎡)가 해제 대상이다.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9,356.4㎡ (34.0%), 강동구가 7,475.1㎡ (27.2%), 중랑구가 6,016㎡(21.9%)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3월 4일(월)부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시를 시민들에게 열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년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 지정되었으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과 임대주택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에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도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3.0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한 뼉 늘어난 우리 동네 공원으로 놀러오세요

한 뼉 동네 공원 '쌈지마당' 시범지역 관악구 은천동 151㎡ 처음 조성 완료, 22일(금) 개방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원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한 뼉 동네공원 '쌈지마당' 이 관악구 은천동에서 첫 결실을 맺는다. 시는 올해 2개 시범 대상지 중 관악구 은천동 151㎡를 조성 완료하여 오는 22일(금) 주민들에게 처음 개방한다고 밝혔다.

쌈지마당은 평균 175㎡의 작은 규모의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작은 동네공원을 공원소외지역에 만들어 주민 휴식공간은 물론 마을공동체의 중심공간기능을 겸한다는 데 있어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원 소외지역 대상지 81개소 중 전문가 회의를 거친 6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를 거쳐 '나가수 방식' 으로 최종 관악구 은천동, 구로구 개봉동 2개소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공동협의체는 시의원과 구의원, 쌈지마당 대상지 주변의 주민,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대상지 선정, 설계,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조성된 쌈지마당은 주민참여화단을 설치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체험 활동공간도 마련하고, 옆집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시설에서 수목에 급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됐다.

주민참여 화단과 유류 저수지 설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는 마을반상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계획안을 구상, 사후관리 운영계획까지 논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조경가의 자문을 받아 조성하게 됐다. 어르신들에겐 옛 정취를 느끼게 하고 아이들에겐 신기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수동펌프를 설치해 재미를 더했다.

또한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원(옆집 및 앞집 주민 등)이 직접 공원 출입문 관리도 하고 식물급수와 주민화단 청소 등 향후 관리방안도 주민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쌈지마당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원

이며, 대상지 선정부터 조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민의 뜻이 담겨 있고 주민의 손으로 이끌어 지기 때문에 쌈지마당처럼 주민이 진정 필요한 작은 공간까지 직접 파고드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3.03.21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부산시, 2013년도 도시브랜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부산의 2013년도 도시브랜드 정책 키워드는 '공감'

부산시는 '부산 도시브랜드 3개년(2012~2014)기본계획'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줄 사업 추진의 가이드라인인 '2013년도 도시브랜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부산도시브랜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도시브랜드 마스트플랜인 '부산 도시브랜드 3개년 기본계획'에 명시한 3대 핵심가치인 개방성, 역동성, 국제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Bridges of BUSAN 세계 명품화, 갈매기공원문화 브랜딩, 전통시장 명품화 등 29개 사업에 대한 올해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기본 계획에서 정한 해양문화, 영화영상, 도시재생(창조도시), 브랜드마케팅 분야의 4개 추진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도시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실행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해 정책키워드를 '공감'으로 정하고 도시브랜드 추진 동력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도시브랜드 정책 열린 담론의 장'을 확대·운영하고 지난 1년 동안 매달 발행해 오고 있는 '브랜드 파워링 뉴스레터'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록하는 등 시

민과 공감하는 도시브랜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브랜드 정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서울을 비롯한 국내 7대 도시 중 브랜드 파워지수 4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왔다.

2013.03.21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확정

3.13.~4.3.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일반인 공람 실시

부산시, 주거·상업·공업용지 확보와 기존 불합리한 도시관리 계획 정비를 위해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하고 3.13부터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4월21일부터 추진해 온 '202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확정짓고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21일간, 공휴일 및 일요일제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직종합운동장(주경기장내)에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작성되는 것으로 2012년 1월 18일자로 확정된 '2030년 부산도시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위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의 조정과 목표연도인 2020년에 필요한 시가지화 용지(주거·상업·공업용지)확보, 그리고 구청장(군수)과 주민 등이 건의한 내용 중 우리시의 개발방향에 맞는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현실화 그리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선 정리 등의 기준에 따라 북구 만덕동 465-2번지(만덕1터널 입구), 사하구 감천동 789번지(유림아파트 주변), 금정구 장전동 산40번지(부산 대학) 등 30개소(0.72km²)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준주거지역은 서구 아미동 16-6번지(부산대학병원 옆), 사하구 괴정동 820-5번지(서화의원 주변), 동래구 명륜동 553-12번

지(동래역 동측) 등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상향 필요 지역 28개소(0.52km²)를 준주거지역으로 확보하였다. 상업지역은 남구 대연동 56-7번지(경성대 입구), 사하구 장림동 341-12번지(장림시장 주변), 동래구 안락동 423-1번지(안락교 차로 일원) 등 13개소(0.32km²)를 확보하였다. 공업지역은 남구 용호동 12번지(남부하수처리장) 등 3개소(0.16km²)를 확보하였으며, 녹지지역은 기장군 어항개발지역, 동구 제55보급창 부지, 온천천 등 13개소(0.72km²)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북구 덕천교차로 주변에 대하여 최저고도지구 변경(6m이하→9m이하), 서구 남부민동 684번지 일원(충무동 새벽시장) 등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13개 지역에 대하여 방화지구를 병행지정(변경),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동구 55보급창 부지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제외 등 용도지구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람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재 공람 절차를 거쳐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올해 12월 최종 결정 고시 할 계획이다.

2013.03.1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5월 30일~6월 3일까지 접수...공간디자인·시설물디자인 분야

대전시는 '문화가 흐르는 디자인도시'를 주제로 제5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골목길, 교량하부, 지하보도 등 이용하지 않거나 버려진 자투리 공간에 대해 재설계하는 공간디자인 분야와 그 공간에 잘 어울리는 시설을 디자인하는 시설물디자인 분야다. 응모 자격은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는 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http://design.daejeon.go.kr>)를 통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1인

당 출품작은 2점 이내다. 시는 출품작에 대해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기능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으로 도시의 낡고 버려진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될 것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시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03.11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대전시, 동구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건립 ‘본격화’

성남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 예정지 지장물 실태조사 실시

대전시는 동구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정지의 보상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등 본격적인 지장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동구 성남동 129-1번지 일원에 대해 이달 중 지장물 실태조사 및 보상계획을 수립, 내달 보상계획을 공고해 오는 7월까지의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민의 임시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6월 동구 인동·성남동, 중구 오류동 일원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12월 총 사업비 507억 원 중 국비 60억 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했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가운데 85%를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남동 임대주택은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대지 2408㎡에 지상 5~9층의 1개동 99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 및 주민 만족도 최상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3.03.20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제5회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실시

「경기 디자인 클리닉 제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 인증마크(GGGD : Gyeong-gi Good Design)사용권한 3년간 부여

경기도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발을 장려하여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관련 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고자 『제5회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제는 우수 공공시설물을 인증하고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독창적인 디자인 및 품질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인증대상은 벤치, 가로등, 파고라 등 공공시설물이며(교통·휴게·광고·보행·판매·관리시설물), 서류심사(온라인)와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 경기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설치권장 및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인증제 서류 및 현물 심사에서 탈락한 제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지도를 통해 중소 업체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경기 디자인 클리닉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인증제가 정착이 될 경우, 불필요한 디자인용역을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시설물의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도에는 어떤 참신한 공공시설물이

인증시설물로 선정될 지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공공시설물 업체의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http://design.g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2013.03.10

경기도청 디자인추진단 디자인산업팀

경기도 “하자는 안돼” 건축인 한자리에...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등 정보교환

경기도는 15일 성남 분당 소재 LH사옥에서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주택관련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공동주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 관련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경기도 품질검수위원과 도내 건축 중인 건설사업자, 도·시·군 건축 관련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설계부터 시공·준공까지 무하자 건설공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설계 및 시공 사례를 소개하고 품질검수 기법 등에 대하여 토론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였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제도를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호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문의가 쇄도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선례가 되고 있다. 또한 그 간 추진해 온 하자점검 기법과 부실공사 및 하자사례 등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에 담아 입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 도내는 물론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경기넷 홈페이지(도민생활정보-부동산-공동주택품질검수)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에 대한 입주민 등의 깊은 관심과 확대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는 검수 대상을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 공동주택 리모델링까지 범위를 대

대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품질검수단도 건축, 시공, 디자인, 조경, 설비, 교통체계 등 분야별 전문가 80명으로 정예화 함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 품질검수단을 자체 구성·운영토록 하여 경기도 품질검수단을 직접 참여시켜 공정성을 한층 드높였다.

앞으로 경기도는 품격 높은 주택건설 등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는 신념을 갖고 도민과 건축 관계자, 공무원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현장행정으로 도민의 편익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03.17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택품질팀

세상을 바꾸는 착한 디자인 찾는다

제7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제7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뽑는다. 도는 사회적 인식이 성숙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공공디자인에 적용해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해 보자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부문은 ‘공공매체(시각)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공간 디자인’ 등 3개 부문이다. 국내외 디자인 분야 학생 및 전문가,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24~28일 중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예비 접수한다. 입선작은 7월 19일 발표한다.

경기도는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공공디자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3.03.26
경기도청 디자인총괄추진단 공공디자인팀

제1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주제

충청북도는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주제로 제1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청풍명월의 정체성을 살리고 생태문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지닌 아름다운 시설물을 창출하고자 실시하며,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도는 2014년 개최예정인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리고 바이오를 상징할 수 있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공공공간(상징조형물, 광장, 주출입구)과 공공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사인, 휴지통)부문으로, 작품접수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7점(총 상금 2,100만 원)을 선정, 입상작에 대해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마스터플랜에 접목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 시책을 더욱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03.04
충청도청 건축디자인과

충북 도내 공공디자인, 스토리텔링으로 꾸며진다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텔링의 디자인

충북의 공공디자인이 딱딱하고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텔링의 디자인으로 꾸며진다. 충북도는 청풍명월의 정체성을 살리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창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 역사문화인물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공공디자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린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틈새공간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역사문화체험의 공간, 우리 고유의 삶과 멋이 있는 추억의 공간,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휴식의 공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나타내는 상징의 공간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시군 공모로 추진하며 공모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콘텐츠 개발 사업을 계기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 시책을 더욱 발굴하여 지역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한편, 수준 높은 유무형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을 통한 한 차원 높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으로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03.18
충북도청 건축디자인과

2013년 충청북도 건축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

건축·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연찬을 통한 건축행정 정보 공유와 전문성 제고로 질(質) 높은 대민행정 구현을 위해

충북도는 건축·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연찬을 통한 건축행정 정보 공유와 전문성 제고로 질(質) 높은 대민행정 구현을 위해 도내 건축 및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은군 충북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며, 도는 도시재생사업 등 건축행정업무 관련 4개 분야의 연구과제 발표 및 자유토론 등을 통해 건축공공디자인업무 전문역량 및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사항, 새 정부 주택정책 및 ‘13년 주요업무 계획 설명과 공공디자인·도시경관주택관리·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등 4개 분야를 연구과제로 삼아 토론을 하게 된다. 또, 업무혁신 성공 및 실패사례와 민원쟁점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축행정 정책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창의행정 실현을 위한 업무연찬이다.

이번 워크숍을 건축공공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3.03.22

충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4월호 (통권3호)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일 : 2013.05.31

발행인 : 제해성

ISSN : 2288-274X

편 집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담당자) 031-478-9845, kslee@auri.re.kr (이경신)



ISSN 2288-274X